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463

#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 KBS 재난 다큐멘터리, <현장르포, 후쿠시마의 진실>을 중심으로

박덕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Effect of current documentary on viewer's political & social recognition – focused on KBS disaster documentary, <Spot Reportage, Truth of Fukushima>

**Dug-Chun Park**
**Dept. of media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미디어 효과 연구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실태를 취재한 시사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국내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그동안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TV나 신문 인터넷 등의 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디어의 뉴스 콘텐츠 못지않게 다양한 주제를 심층 분석하여 수용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TV 시사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수용자 효과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사능 오염을 주제로 한 재난 다큐멘터리가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재난 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야당의 지지도가 높았으며, 노후 원전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여 더 적극적으로 폐기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전의 추가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 시사다큐멘터리, 의제설정, 점화효과, 미디어 효과, 수용자

**Abstract** This experimental research as media effect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the current documentary that deals with radioactive contamination widely spread by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political and social recognition of domestic audience. Proceeding studies about media effect dealt mainly with news contents of TV, newspaper and internet. However studies on the effect of current documentary as non news contents on audience that provide us with profound information by various subjects are very few.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disaster documentary dealing with radioactive contamination having much effect on global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research implemented experimental study to find out the effect of current documentary that deals with radioactive contamination by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political and social recognition of audience. This research found that subjects exposed to the current documentary considered outdated nuclear power plant more seriously, supporting the opposition party more positively, claiming shutdown of outdated nuclear power plant, and opposing additiv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than subjects not exposed to the current documentary.

**Key Words :** Current Documentary, Agenda Setting, Priming Effect, Media Effect, Audience

Received 14 October 2016, Revised 24 Nov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Park, Dug-Chun (Dongseo University)
Email: parkdc2521@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난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인쇄 미디어인 신문, 잡지, 책, 전파 매체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터넷 미디어 등이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 전반에 미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부 연구들은 가설에 그치기도 했으며, 많은 연구들은 그 효과가 입증되고, 동료 연구자들의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 이용과 충족 이론, 의제 설정 이론, 점화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 틀짓기 이론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정착되기도 했다[6].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가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뉴스 콘텐츠에 주목하여, 뉴스 콘텐츠가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비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즉 멀티미디어 시대에 생산되는 뉴스 이외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10].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관객들의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실험으로 입증한 연구[5]가 국내에서 수행되었으며,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토크쇼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검증하였다[1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룬 텔레비전 시사 다큐멘터리 또한 미디어 수용자의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9월 12일 국내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대 분수령에 놓였다. 특히 환경단체에 의해 건설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된데 이어, 야당이 반대 당론까지 채택하고 일부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3].

이러한 국내의 재난 환경 속에서, 본 연구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들이 뉴스 콘텐츠에 주목하느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지진을 소재로 한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가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의제설정 이론, 점화이론, 문화계발이론, 틀짓기 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활발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제설정효과 이론과 점화효과 이론을 배경으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비뉴스 콘텐츠인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대표적인 미디어 효과 이론인 의제설정 이론은 뉴스 미디어가 특정한 이슈나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면, 그 이슈나 사건들은 공중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이론이다[17]. 이처럼 미디어에 의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슈나 사건들에 대한 공중의 인식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평가할 때, 쉽게 생각나기 때문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점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제설정 효과가 점화 효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4].

의제설정 효과가 점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론적인 함의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함의를 지닌다. 우선, 점화효과를 가진 의제설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대통령 지지도와 같은 랠리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국가적 위기 기간 동안,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는 공중이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며, 일단 하나의 미디어 의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면,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9]. 또한 위기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미디어의 보도는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정부에 대단히 우호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중은 위기에 관한 정보를 주로 뉴스 미디어

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중은 대통령을 더욱 지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랠리 효과'이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에 의하면, 미디어의 의제설정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조건들은 정치적 흥미도와 관여도라고 한다. 정치적 지식과 관심이 많은 정치적 엘리트 계층과 정치적 지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적 비엘리트 계층을 명확한 비율로 나눌 수는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비엘리트 계층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비 엘리트 계층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이슈가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그들의 지각은 미디어 의제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13].

또한 정치에 흥미가 결여된, 비엘리트 계층은 특정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미디어가 현저하게 보도하면, 쉽게 점화된다. 또한 이들 비엘리트 계층에게 정치적 후보에 대한 '인상(impression)'은 미디어 의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정치적 메시지는 미디어 의제를 교묘히 조종하여, 절대 다수인 비엘리트 계층이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선거에서 비엘리트 계층의 한 표도 엘리트 계층의 한 표와 똑 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미디어가 절대 다수인 비엘리트 계층을 흔들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의미있는 효과일 것이다.

미디어의 보도가 정치적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접근가능성 휴리스틱(accessibility heuristic)을 사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이엔거와 사이먼(Iyengar & Simon, 1993)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9]. 이 연구에 의하면,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수용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기억 속에서 어떤 사례에 접근하도록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접근가능성 휴리스틱에 기반을 둔 이러한 설명은 정치적 점화 효과 분야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고 경험적인 검증을 받은 경우가 드물었다.

점화효과의 접근가능성 요소를 검증했던 밀러와 크로스닉(Miller & Krosnick, 2000)의 연구는 정치적 점화작용이 숙의적 처리과정을 통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1]. 그들은 이러한 숙의적 처리과정은 점화작용이 보통 즉각적인 반사적 처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델의 예측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사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반사적 처리과정이 숙의적 처리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15].

프라이스와 툭스버리(Price & Tewksbury, 1997)[2]의 정치적 점화효과 모델은 버코위츠(Berkowitz, 1984)의 신 연관 네트워크 모델과 비슷하게 기억의 네트워크 모델과 미디어가 기억에서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에 기반을 두고 있다[14]. 그리고 프라이스와 툭스버리는 자신들의 모델에 정보의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포함시킨다. 적용가능성은 정보가 당면한 상황에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점화된 정보가 당면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면, 그 정보는 정치적 판단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화효과는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카펜티어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미디어의 점화효과가 노출 이후 30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4] 이와 유사하게, 알사우스와 김(Althaus & Kim, 2006) 또한 점화의 단기적 효과를 입증했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는 단기적 효과가 미디어 노출 이후 24시간 내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1]. 그러나 많은 다른 정치적 점화효과 연구들에서는 미디어 노출 효과가 최소 몇 주간 지속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점화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한 이론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18].

이러한 정치적 점화효과의 흐름 속에서 비뉴스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는 영화(Holbert & Hansen, 2006)[7], 법죄 드라마(Holbrook & Hill, 2005)[8], 심야 토크쇼(Moy, Xenos, & Hess, 2005)[12] 등이 정치적 점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리고 미디어가 대통령 이외의 다른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16].

본 연구에서는 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비뉴스 콘텐츠인 시사다큐멘터리가 미디어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재난에 관한 시사다큐멘터리의 수용자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영향력의 새로운 측면을 탐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3.1 연구문제

정치적 점화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미디어에 의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슈나 사건들은 공중의 마음 속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들 이슈나 사건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평가할 때,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미디어는 의제설정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제설정 기능은 점화효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미디어의 뉴스 콘텐츠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일부 영화, 토크쇼, 범죄 드라마 등이 정치적 점화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점화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독립변인으로 다루어지 않은, 지진이라는 재난 상황을 다룬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을 점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13년 10월 15일 방송된 KBS1 TV '시사기획 창 – 현장르뽀, 후쿠시마의 진실'이라는 시사다큐멘터리를 실험 자극물로 선정하고, 이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본 재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노후 원전 폐기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연구가설2: 본 시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연구가설3: 본 재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일본산 농수산물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구문제1: 본 재난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수용자의 정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1-1: 본 재난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수용자의 여당에 대한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2: 본 재난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수용자의 야당에 대한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2 연구방법 및 변인의 측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생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한 집단에게는 시사 다큐멘터리 '현장르뽀, 후쿠시마의 진실'을 시청하게 한 후, 그리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이 영상자극물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피험자들의 노후 원전에 대한 인식,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인식,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인식,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도 등을 측정하였다[Fig. 1], [Fig. 2].

[Fig. 1] Scen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Fig. 2] Scene of fukushima fish market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남자 대학생 45명, 여자 대학생 57명, 모두 102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는 50명,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는 52명이었다<Table 1>.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 participants

| Categories | Docu Viewer | No Viewer | sum |
|---|---|---|---|
| male | 22 | 23 | 45 |
| female | 28 | 29 | 57 |
| sum | 50 | 52 | 102 |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들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문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원전 문제에 대한 인식 : "귀하께서는 노후 원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천천히 폐기해도 된다'(0점), '조속히 폐기해야 된다'(7점) 사이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귀하께서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0점), '필요하다'(7점) 사이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인식 : "귀하께서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안전하지 않다'(0점), '안전하다'(7점) 사이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도 : "귀하께서는 야당(여당)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로 물어서, '전혀지지하지 않는다'(0점)에서 '적극 지지한다'(7점) 사이를 각각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노후 원전에 대한 수용자 인식

"본 재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노후 원전 폐기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영상 자극물인 다큐멘터리 시청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노후 원전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노후 원전 폐기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34, df=1, p<.05).

<Table 2> ANOVA of audience's support on disposal of outdated nuclear power plant

| Categories | Case | Mean | SD | F | DF | Sig. |
|---|---|---|---|---|---|---|
| docu-viewer | 50 | 6.4 | 1.35 | 7.34 | 1 | .01 |
| No-viewer | 52 | 5.1 | 1.17 | | | |

즉,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평균=6.4)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평균=5.1)보다 노후 원전 폐기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 4.2 원전 추가 건설에 관한 수용자 인식

"본 시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영상 자극물인 다큐멘터리 시청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 문제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ANOVA of audience's support on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 Categories | Case | Mean | SD | F | DF | Sig. |
|---|---|---|---|---|---|---|
| docu-viewer | 50 | 1.3 | 0.55 | 8.45 | 1 | .002 |
| No-viewer | 52 | 2.1 | 0.72 | | | |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원전 추가 건설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45, df=1, p<.05).

즉,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평균=1.3)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평균=2.1)보다 원전 추가 건설 문제에 대해 지지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 4.3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본 재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일본산 농 수산물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서, 영상 자극물인 다큐멘터리 시청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ANOVA of audience's recogni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 Categories | Case | Mean | SD | F | DF | Sig. |
|---|---|---|---|---|---|---|
| docu-viewer | 50 | 5.4 | 1.02 | 1.22 | 1 | .35 |
| No-viewer | 52 | 4.9 | 0.92 | | | |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22, df=1, p>.05).

따라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본산 농 수산물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설 3>은 기각되었다.

### 4.4 재난 다큐멘터리 시청과 정당 지지도

'본 재난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수용자의 여당과 야당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한 <연구문제 1-1>과 <연구문제 1-2>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용자의 영상자극물 노출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여당과 야당 지지도를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5> ANOVA of audience's support of ruling party

| Categories | Case | Mean | SD | F | DF | Sig. |
|---|---|---|---|---|---|---|
| docu-viewer | 50 | 2.2 | 0.55 | 0.85 | 1 | .42 |
| No-viewer | 52 | 2.4 | 0.61 | | | |

<Table 6> ANOVA of audience's support of opposition party

| Categories | Case | Mean | SD | F | DF | Sig. |
|---|---|---|---|---|---|---|
| docu-viewer | 50 | 4.8 | 1.22 | 6.55 | 1 | .01 |
| No-viewer | 52 | 3.5 | 0.95 | | | |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여당 지지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85, df=1, p>.05).

그리고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야당 지지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55, df=1, p<.05).

즉,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여당 지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야당 지지도에 있어서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4.8)들이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3.5)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발전소 주변 마을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실태를 현장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시사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국내 수용자의 사회적, 정치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특히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과 방사능 피해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시청이 수용자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그동안 점화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의 반복적인 보도에 의해 공중이 특정 이슈나 사건들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치인을 평가할 때 이들 이슈나 사건들이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점화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혹은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 콘텐츠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점화 효과의 일부 연구들이 영화, 토크쇼, 범죄 드라마 등도 점화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못했던 비뉴스 컨텐츠 중에서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을 점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0월 방송된 KBS1 TV의 '시사기획 창 - 현장르포. 후쿠시마의 진실'이라는 시사다큐멘터리를 영상자극물로 선정하고, 이 시사 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의 피험자들은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다른 한 집단의 피험자들은 이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하여, 이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노후 원전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전의 추가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 1-1>과 <연구문제 1-2>에서,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이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에 여당의 지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이 이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 두 집단 간 야당의 지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이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해 일본산 농수산물이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가설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본 연구의 영상자극물인 KBS 1TV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 - 현장르포, 후쿠시마의 진실'의 시청은 미디어 수용자에게 노후 원전의 폐기,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야당에 대한 지지도와 같은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여당의 지지도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또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수행한 시점이 경주 지진이 발생하여, 경주 인근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문제화 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실험의 영상자극물인 시사다큐멘터리의 수용자 효과가 일부 가설과 연구문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경주 지진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본 실험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주제로 한 시사다큐멘터리가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여당 지지도와 같은 일부 연구가설과 연구문제에서 수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감안할 때,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의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의제설정 효과와 점화효과와 같은 대표적인 미디어 효과 연구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이나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의 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비뉴스 콘텐츠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의 정치적 사회적 점화효과를 일부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닌 탐색적 차원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탐색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비뉴스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점화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1] Althaus, S. L., & Kim, Y. M. Priming effect in complex information environments: Reassessing the impact of news discourse on presidential approval. Journal of Politics, 68, 960-976, 2006.

[2] Berkowitz, L.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410-427, 1994.

[3] Busanilbo,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pp. 1., Sep. 30, 2016.

[4] Carpentier, F. D., Roskos-Ewoldsen, D. R., &

Roskos-Ewoldsen, B. A test of the network models of political priming. Media Psychology, 11, 186-206, 2008.

[5] Hee-Jo Keum, Effect of movie 'Brilliant holiday' on political attitude of audience, Journal of Korean Press, 52-2, pp. 70-95, 2008.

[6] Hee-Ok Nho, Yong-Ho Kim, Seung-Jun Hong, "A Study on Technostres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Us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41-46, 2015.

[7] Holbert, R. L., & Hansen, G. J., "Fahrenheit 9-11, need of closure and the priming of affective ambival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pp. 32, 102-129, 2006.

[8] Holbrook, R. A., & Hill, T. "G.Agenda-setting and priming in prime time television: Crime dramas as political cues". Political Communication, 22, 277-295, 2005.

[9] Iyengar, S., & Simon, A.,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Communication Research, pp. 20, 365-383, 1993.

[10] Ki-Sun Han, "Broadcast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in Restricted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4, No. 1, pp. 9-13, 2013.

[11] Miller, J. M., & Krosnic, J. A. News Media impact on the ingredients of presidential evaluations: Politically knowledgeable citizens are guided by a trusted sou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295-309, 2000.

[12] Moy, P., Xenos, M. A., & Hess, V. K., "Priming effects of late-night come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18, pp. 198-210, 2005.

[13] Perse, E. M., "Media Effects and Societ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14] Price, V., & Tewksbury, D., & Power, E.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s. Communication Research", 24, 481-506, 1997.

[15] Roskos-Ewoldsen, D. R., Klinger, M., & Roskos-Ewoldsen, B., "Media priming", In R. W. Press, B. M. Gayle, N. Burrell, M. Allen, & J. Bryant (Eds.), "Mass media theories and processes: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pp. 53-80, Mahwah, NJ: Erlbaum, 2007.

[16] Sheafer, T., & Weimann, G., "Agenda-building, agenda-setting, priming, individual voting intentions, and the aggregate results: An analysis of four Israeli elec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5, pp. 347-365, 2005.

[17] Takeshita, T. "Agenda-setting effects of the press in a Japanese local election". Studies of broadcasting, 29, 193-216, 1993.

[18] Wanta, w. "The effects of dominant photographs: An agenda-setting experiment". Journalism quarterly, 65, 107-111, 1988.

박 덕 춘(Park, Dug Chun)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공학사)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언론학 석사)
・2010년 8월 : 경북대학교(언론학 박사)
・2004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방송 영상
・E-Mail : parkdc2521@hanmail.net